

## 공천 연기 ... 예비후보 초조

### 열린우리당 후보競選 미뤄

지방선거 후보결정 데드라인 4월30일

열린우리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김부겸)는 지난 4일 단수공천 11개지역 기초단체장 후보를 발표하는데 이어 지난 7일 기초단체장 경선지역 및 경선후보자 현황과 지역구 광역의원선거 경선지역 및 경선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포천시시장 후보 및 광역, 기초의원 경선일정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정명재 열린우리당 포천시당원협의회장은 "열린우리당 공천의 기본 구도는 경선이기 때문에 경선방식은 결정되어있다"며 "조만간 경선일정을 세워 경선지역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당원협의회장은 "이번 선거 일정상 4월30일을 공천 데드라인으로 잡고 그 이전에 열린우리당 시장 후보와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를 마무리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장 당원협의회장이 밝힌 열린우리당 포천시시장 후보결정은 당원들의 경선과 국민참여 방식의 일환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합산해 후보를 선출한다. 열린우리당 포천시당원협의회 회장은 2006년2월말 현재 1천200여명

이며 이중 기간당원은 500여명이다. 나머지 700여명은 일반당원이다. 포천시시장 후보는 기간당원은 전체(30%), 일반당원 표본추출(남여, 연령, 지역 등 안배) 20%가 참여해 경선을 통해 선출한다. 여기에 일반유권자 여론조사를 실시해 50%를 반영한다. 포천시당원협의회는 단수로 후보공천을 신청한 경기도의회 포천시 제2선거구는 이회승씨가 공천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초의원 선거구의 경우 포천시의회 의원 '가' 선거구와 '나' 선거구는 각 1명씩 공천을 하고 '다' 선거구는 2명을 공천한다. 현재까지 열린우리당 '가' 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3명, '나' 선거구 2명, '다' 선거구 3명이다.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열린우리당 후보선출 방식은 선거구별로 기간당원 50%와 일반유권자 50%로 결정한다. 일반유권자를 대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선거구별 기간당원과 함께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 한나라당 公薦 또다시 연기

시도의원 공천 12일경 확정발표 예정

지난 6일 한나라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이주석(57세) 前경기도의원을 경기도의원 포천시 제2선거구 한나라당 후보로 확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6일로 예정되었던 경기도의원 제1선거구를 비롯한 시의원 후보 공천은 지연되고 있다. 한나라당 포천시당원협의회에 의하면 이들 시도의원 후보공천 발표는 오는 12일경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당초 6일 발표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다"면서 "열린우리당 후보 결정과 보조를 맞추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상대 黨후보에 비해 먼저 후보를 결정하면 흡입력이 등 비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기초의원들에 대한 공천내락(내부적으로 공천을 결정하고 공천받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었다는 소문은 전혀 근거 없다"면서 "오는 12일 수요일에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한나라당 시장후보 공천결과는 17일경으로 잡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더

연기될 수 있다"고 말해 시장후보 결정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공천심사위원회의 생각과는 달리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자들은 공천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워서도 늦어지는 공천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현시의원으로서 한나라당 시의원 후보공천을 신청한 모의원은 "열린우리당과 무소속 출마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실질적인 선거운동 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비후보 등록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공천이 늦어지는 만큼 공천 프리미엄이 감소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했다. 또 "공천이 조기에 마무리되면 공천탈락자들의 무소속 출마자가 줄어들는데, 늦어지는 만큼 비용은 물론 준비가 많이 하기 때문에 출마 포기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임명을 요구한 또다른 모 예비후보는 "다른 사람들은 현수막을 내걸고 명함을 돌리고 있는데 공천이 확정되지 않아 불안하기만 하다"면서 "이제는 발을 빼기는 쉽지 않다. 공천과 관계없이 출마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 시설관리공단 심의 보류

市議會, 사업범위 등 면밀한 檢討 필요  
市, 7월 설립 계획 선거이후 다시 논의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추진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23회 포천시의회 임시회에 포천시가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을 상정했으나, 시의회는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의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조례심의를 보류시켰다. 시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상정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법적인 측면에서는 이상이 없다"면서도 "인근 시군 시설관리공단 운영 실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한 후 시간을 갖고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또 "비록 지난 1월20일 심의위원회에 의원 1명이 참석해 용역 결과를 청취하기는 했어도 용역기관에서 의원들에게 추진경위 및 타당성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범위 및 수익구조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의원들은 "타 지역 시설관리공단을 벤치마킹하면서 자료나 판단기준 등을 충분히 수집

한 후 시간을 갖고 연구해 봐야 한다"면서 "시설관리공단 심의 보류는 이번 선거와 관련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 심의보류는 정치나 혹은 선거와 연계하여 생각해서는 안된다"면서 "이번에는 조례에 관한 사항만 검토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 관계자는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심의회에서 이미 가결된 사항인데 심의보류를 결정했다"면서 "당초 7월 설립 예정이었는데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인근 시군 시설관리공단을 벤치마킹 등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시의회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안은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 중에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추진을 위해 정관, 재정 등 30여 가지에 달하는 준비는 별도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지난해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시설관리공단 추진

용역을 의뢰해 10월 최종 보고회를 가진 바 있다. 이 당시 용역을 의뢰받은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측은 "포천시가 검토 의뢰한 21개 대상사업을 필터링한 후 9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초기부터 영입이익 발생이 예상되어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설립은 타당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공단설립 평가 기준은 ▶공단위탁을 통한 운영 효율화로 비용절감 또는 수익증대 효과 ▶공단위탁을 통한 효율적 조직구성이 가능한지 여부 및 인력구성의 타당성 ▶관리공단 위탁사업의 범위 등으로 삼은 바 있다. 그러나 시청사 청소용역과 포천반월아트홀은 경제적 타당성이 낮고 관리방식이 시설관리공단과는 맞지 않다고 검토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경우 초기 소요인력은 이사장을 비롯한 정규직 18명과 일용직 35명 등 53명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은 향후 5년동안 포천시시설관리공단은 경영흑자를 나타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 민노당 무소속 출마자 출격 채비

양당 후보공천 후 더 늘어날 전망

민주노동당 공천을 받아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아도니스OC 최기범 노조위원장이다. 최 노조위원장은 올해 나이 34세로 민주노동당 포천시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포천시의회 '다' 선거구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무소속으로 이번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발표한 사람은 모두 3명이다. 경기도의원 무소속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사람은 오병익 현 경기도의원이다. 오병익 의원은 올해 나이 47세로 경북대 의대교수와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장을 맡고 있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또 포천시의회 '가'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표명한 사람은 김민호 포천시축구협회 부회장이다. 김민호 부회장은 32세로 경기북부생활축구 연합회 이사도 함께 겸임하고 있다. 포천시의회 '다'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사람은 김영오 현 포천시의원이다. 김영오 시의원은 올해 나이 57세로 포천국악협회 부지부장이다. 이외에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포천시의원 후보공천이 완료되면 무소속 출마자들이 러시를 이룰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경기도당 심사위원회가 후보공천을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예비후보들간에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비후보들은 5일 전날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명함을 배포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대부분 유권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 포천에서 요즘 유행하는 말들

쓰리피(PPP) · 쌍피(PP) · 아이피(IP)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말들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무런 여과없이 유행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쓰리피(PPP)는 P는 Pocheon의 약자로 첫 번째 P는 포천동 출신으로 포천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리고 두 번째 P는 포천중학교 출신, 세 번째 P는 포천중고 출신을 말한다고 한다. 쌍피(PP)는 포천동을 제외한 신북면과 군내면 등의 출신으로 포천중학교와 포천중고를 졸업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한다.

아이피(IP) 등 IP는 Ildong Pocheon의 약자로 흔히 일동출신으로 포천중학교를 졸업했거나 혹은 포천중고를 졸업한 사람을 지칭한다. 이같은 추세라면 DP(Different Pocheon), 즉 타지역 출신으로 포천중 혹은 포천고를 졸업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출생해 서울이나 여타 지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무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또 타 지역에서 출생 및 교육을 받고 포천에서 살고있는 사람은 또 무란 말인가?

포천시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이 지역에서 출생했던 다른 지역에서 출생했던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모두 포천시민이요, 포천시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나라는 영호남의 지역감정이 심하다. 그런데 포천지역 소지역주의는 더 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소지역주의 만연은 화합과 단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결국 지역을 멍들게 한다. 포천시민들은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 혹은 지역할거주의를 만들어 내는 사람에게 현혹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Global Inspiration  
세계 속의 경기도

# 대한민국의 미래 영어마을